

# 緊急懸案資料

발표 시점 : 2008년 3월 18일 (화)

보도 시점 : 발표 즉시

제목 : 미 추가 금리 인하의 영향과 시사점

- 현대경제연구원은 "미 추가 금리 인하의 영향과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
- 내용은 < 첨부 문서 >를 참조

## < 첨부 문서 >

① 미 추가 금리 인하의 영향과 시사점 (요약 및 본문)

## < 연락처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 본부장 (3669-4121, swhan@hri.co.kr)  
주     원     연구위원 (3669-4030, juwon@hri.co.kr)  
한 상 곤     연구위원 (3669-4120 sghan49@hri.co.kr)  
표 한 형     연구위원 (3669-4131 raisosa@hri.co.kr)  
임 희 정     연구위원 (3669-4031 limhj9@hri.co.kr)

연구 자료

## 미 추가 금리 인하의 영향과 시사점

2008. 3. 18.

# Executive Summary

## □ 미 추가 금리 인하의 영향과 시사점

### 1. 개요

미 FRB는 현지 시각으로 3월 18일에 열리는 공개시장조작위원회에서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최소 0.5%p에서 최대 1.0%p 인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연방기금금리는 작년 9월 5.25%에서 6월에 걸쳐 현재 3.0%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 FRB는 3월에 들어서만 단기자금입찰(TAF: Term Auction Facility) 및 단기국채대여(TSLF: Term Securities Lending Facility) 방식을 통한 유동성 공급 베어스턴스에 대한 직접 자금 지원 등의 일련의 긴급 유동성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이례적으로 예정에 없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재할인율을 기존의 3.50%에서 3.25%로 0.25%p 인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미 FRB의 긴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 이후 모기지 회사들로부터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가 이제는 베어스턴스와 같은 투자은행에까지 미치고 있을 정도로 신용 경색 문제는 쉽게 해결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실물 경제마저도 주택 건설 경기 급랭의 영향으로 소비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 국면에 빠지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미 FRB가 금융 시장 불안 해소와 경기 연착륙 유도를 위해 대폭적인 금리 인하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 미 추가 금리 인하가 세계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 금융 및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러나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가 **첫째, 글로벌 신용 경색 완화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나타나는 금융 회사들의 파산은 이자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원금 상환 자체가 어려운 디폴트의 문제이다. 또한 국제 금융 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관 금융 파생 상품들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또 다른 금융 기관의 부실화로 신용 경색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글로벌 신용 경색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의 경우 국내 금융 시장의 높은 개방도와 국가간, 금융 기관간 금융 파생 상품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아직은 표면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국내 금융 기관의 지급 불이행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역시 상존하고 있다.

**둘째, 자산 가격은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글로벌 신용 경색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다면 글로벌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약세가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원자재 시장의 경우 자산 시장 약세에 대한 대체 투자 효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 등으로 강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내 부동산 시장 및 주식 시장의 경우에도 글로벌 시장의 영향으로 조정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 가계들의 자산 구입을 위한 차입(신용융자,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자칫 국내 소비 시장 침체를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국내 물가 불안을 지속시켜 내수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글로벌 약달러 추세가 지속되나, 원화는 당분간 약세가 예상된다.** 달러화는 유로화, 엔화 등 주요 경화(硬貨)에 대해 약세를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

이다. 특히 엔화에 대해서는 미 금리 인하로 엔캐리 트레이드 유동성 청산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 엔화 강세 속도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반면 최근까지 원화 약세의 주된 요인인 글로벌 신용 경색 문제가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엔캐리 트레이드 등을 포함한 외환 유동성의 국내 시장 이탈로 원 달러 환율의 약세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넷째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로 선진국 경기 부진이 예상된다.** 미국 경제는 이번 추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국면으로의 진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주택 경기 침체의 강도를 볼 때, 금리 인하 정책 정도의 경기 안정책으로는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 경제가 부진할 경우 미국을 대신하여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성장 주도국이 없는 현실에서, 세계 경제의 동반 불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섯째 중국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와 디커플링을 보일 전망이다.** 중국 금융 시장의 대외개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중국 내 유입 자금이 대부분 단기 기간 내 회수가 어려운 직접투자 자금이다. 또한 미국의 금리 인하로 미 중 간 투자 수익률 격차가 더욱 벌어져 중국으로부터의 투자 자금 이탈은 예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에 미치는 글로벌 금융 부문의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실물 부문의 성장 동력인 올림픽 개최 이후 특수가 사라지는 하반기에는 현재 수준의 고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여섯째 선진국 경기 부진으로 교역량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역의 거의 대부분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하면, 선진국 경제의 침체는 세계 교역량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경우 국내 수출 경기의 하강 국면 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성 장을 지속하는 중국 경제의 인근 효과로 수출 경기 하강 속도는 완만한 수준에서 그 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 투자가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업 투자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3. 정책적 시사점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첫째 정부는 위기 대응 능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수립된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 전반과,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 점검 등이 요구된다.

**둘째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주요 중앙은행들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투기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동산 경기 연착륙 유도과 가계 부채 문제 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탄력적 정책 운용을 통해 민간 부동산경기의 급랭을 막아야 할 것이며,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넷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비한 내수 부문의 경기 지지력 확보가 요구된다.** 우선 내수 회생의 핵심인 기업투자 회복을 위하여, 조속한 투자 저해 규제 해소 친 기업적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을 망라하는 패키지형 투자활성화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미약한 소비 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라도 생필품에 대한 소비세 및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중저소득층 구매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 미 추가 금리 인하의 영향과 시사점 >



## 1. 개요

### ○ 3월, 미 연방은행의 정책 대응

- 3월 들어 미국의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 연준이 연달아 유동성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음
  - 먼저, 미 연준은 3월 7일에는 단기자금입찰(TAF: Term Auction Facility) 방식을 통한 유동성 공급 규모를 기존 6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음
  - 둘째, 3월 11일에는 단기국채대여(TSLF: Term Securities Lending Facility) 방식을 통해 27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 단기자금입찰(TAF)과 단기국채대여(TSLF) 방식의 차이 >

|        | TSLF                              | TAF   |
|--------|-----------------------------------|---|
| 입찰 대상자 | 20여 프라이머리 딜러(브로커/딜러)              | 8,000여 예금은행   |
| 계약 유형  | Bond for Bond<br>(준비금 증가 없음)      | Cash for Bond   |
| 입찰 주기  | 주 1회                              | 월 2회  |
| 자금의 만기 | 28일                               | 28일   |
| 담보 채권  | 공개시장조작 대상채권 및<br>AAA등급 MBS 채권     | 재할인창구에서 사용가능한 모든<br>채권(국채, 지방정부채, 우량회사채,<br>주거용부동산 담보대출 등 우량채권) |
| 특징     | TAF를 보완하여 대상을 증권사 및<br>브로커 등으로 확대 | 공개시장조작의 단점을 보완<br>(거래상대방 담보채권 종류 등을 확대)                         |

- 셋째, 3월 14일에는 미국 5대 투자은행인 베어스틴스에 대해 JP 모건이 재할인 창구를 통해 FRB로부터 직접 자금을 빌리고 이를 베어스틴스에 28일 기한으로 공급<sup>1)</sup>하는 긴급 유동성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음
- 넷째, 3월 16일에는 예정에 없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재할인율을 기존의 3.50%에서 3.25%로 0.25%p 인하하였음
- 다섯째,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 3월 18일에는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1) 베어스틴스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재할인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상업은행인 JP 모건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법을 채택하였고,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대공황 이후 처음임. 한편 JP모건은 베어스틴스를 주당 2달러 총 2.36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하였음.

현행 3.0%에서 최소 0.5%p에서 최대 1.0%p까지 인하할 것으로 알려짐

< 미 연방은행의 정책금리와 재할인금리 조정 추이 >

| 조정일시                   |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       |        | 재할인 금리 |       |        |
|------------------------|------------|-------|--------|--------|-------|--------|
|                        | 조정 전       | 조정 후  | 조정 폭   | 조정 전   | 조정 후  | 조정 폭   |
| '07.8.17               | 5.25%      | 5.25% | -      | 6.25%  | 5.75% | 0.50%p |
| '07.9.18               | 5.25%      | 4.75% | 0.50%p | 5.75%  | 5.25% | 0.50%p |
| '07.10.31              | 4.75%      | 4.50% | 0.25%p | 5.25%  | 5.00% | 0.25%p |
| '07.12.11              | 4.50%      | 4.25% | 0.25%p | 5.00%  | 4.75% | 0.25%p |
| '08.1.22               | 4.25%      | 3.50% | 0.75%p | 4.75%  | 4.00% | 0.75%p |
| '08.1.30               | 3.50%      | 3.00% | 0.50%p | 4.00%  | 3.50% | 0.50%p |
| '08.3.16               | 3.00%      | 3.00% | -      | 3.50%  | 3.25% | 0.25%p |
| '08.3.18 <sup>e)</sup> | 3.00%      | 2.00% | 1.00%p | 3.25%  | 3.25% | -      |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에 따른 파장의 전개 과정

-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부실에 따른 영향이 모기지 업체에서 시작하여 채권 보증업체로 이어지고 최근에는 투자은행에까지 미치고 있음
-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부실이 표면화되면서 2007년 7월 Countrywide Financial과 같은 모기지 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음
  - 10월 중순 이후 Citigroup 등 대형금융기관들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투자관련 손실 규모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재 확산
- 이후 11월에는 모기지 업체의 부실화로 부채담보부증권(CDO)와 주거용모기지담보증권(RMBS) 등 모기지 관련 채권의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채권보증업체(Monoline)로 확산되는 모습
  - 이에 2008년 1월들어 MBIA, Ambac, ACA 등과 같은 채권보증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이들 기관의 신용등급이 유지됨
-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3월 들어 주요 투자은행들의 새로운 형태의 자산 부실이 발생하면서, 베어스텝스社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이 사실상 파산하는 결과를 초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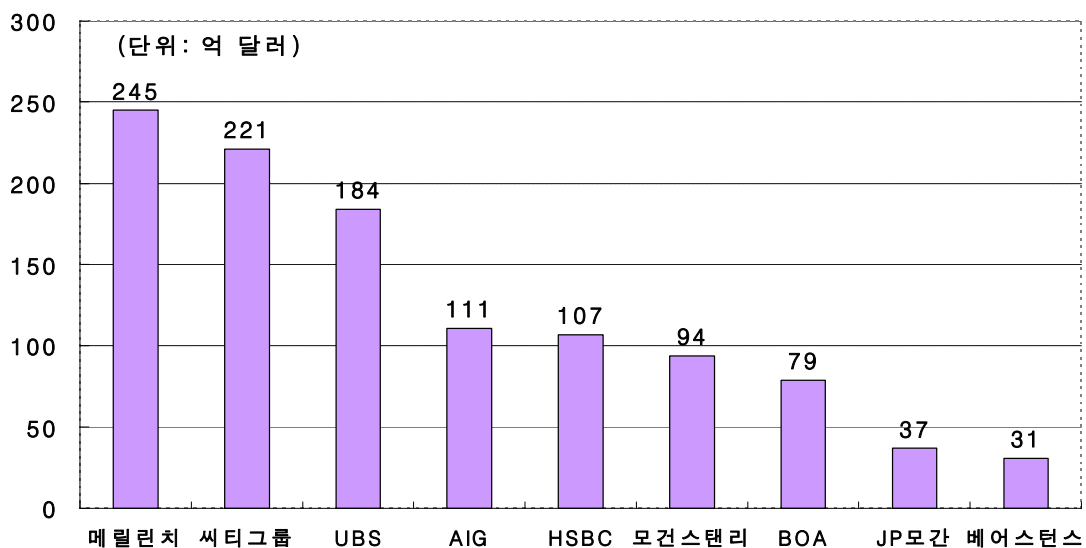
## 2. 미 추가 금리 인하가 세계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1) 금융 및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 신용 경색 문제 해소에 미흡

-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과 대폭적인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신용경색 원인이 유동성 부족이 아니라 신용위험으로 인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으로 전망
- 특히 제4위 대형 투자은행인 리만브라더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 등으로 제 2의 투자회사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한국 금융 시장의 경우에도 높은 개방도와 국가간, 금융 기관간 금융 파생 상품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아직은 표면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국내 금융 기관의 지급 불이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해외 투자은행들의 손실 규모 >





○ 자산 가격 약세 - 원자재 가격 강세 예상

- 글로벌 신용 경색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다면 글로벌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약세가 불가피해 보임
- 반면 원자재 시장의 경우 자산 시장 약세에 대한 대체 투자 효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 등으로 강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한국 금융 시장의 경우에도 글로벌 자산 시장 약세의 영향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 및 주식 시장의 경우 부동산 가격과 주가의 조정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자산 가격 급락이 현실화된다면, 자산 구입을 위한 차입(신용융자,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을 고려할 경우 가계 부문의 디폴트가 확산되어 소비 부문의 장기 침체 국면 가능성이 존재함

○ 미 경기 침체 장기화로 글로벌 약달러 추세 지속 전망

- 달러화는 유로화, 엔화 등 주요 경화(硬貨)에 대해 약세를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특히 엔화에 대해서는 미 금리 인하로 엔캐리 트레이드 유동성 청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엔화 강세 속도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존재
- 그러나 원/달러 환율의 경우 최근 약세의 주된 요인인 글로벌 신용경색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약세 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
  - 특히 국제 금융 시장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과 같은 글로벌 유동성 이동의 방향성 전환이 예상되고 있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2)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 ○ 금리 인하의 미국 경제 침체 완화 효과는 미약 예상

- 미국경제는 2001년 IT 버블의 붕괴 시에도 일시적인 경기침체를 경험한 바 있으며, 그 당시에 연방준비은행은 적극적인 금리인하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을 펼친 바 있음
  - 당시 연방준비은행의 금리인하는 2001년 1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11차례에 걸쳐 0.25~0.5%p씩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2001년 1월 3일 6.00%였던 기준금리가 2001년 12월 11일에는 1.75% 수준까지 하락하였음
- 이러한 적극적인 금리인하 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미국경제는 다시 회복기로 접어들어 2001년 3분기 -1.40%를 기록하였던 경제성장률은 1년 후인 2002년 3분기에는 2.38%로 반등되었으며 이후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 접어들게 됨
  - 특히 이 시기에 금리 인하 정책과 더불어 시행된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미국 가계의 소비가 진작되는 효과를 거둠
  - 미국경제의 회복에 따라 고용여건도 시차를 두고 점차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하였는데, 실업률의 경우 2002년 3분기 6.13%를 최고점으로 점차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6년 4분기 4.43%까지 하락하게 됨
-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회복을 위한 저금리 정책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소비증가세 유지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산시장 버블 붕괴로 인한 경기침체의 단초를 제공함
  - 주택담보대출의 차환(Refinancing)과 불황에 직면한 자동차 업체들의 무이자 할부판매 등으로 가계의 재무구조는 악화되었으며, 가계부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민간부문의 소비증대는 근본적으로 차입에 의존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해 해외로부터의 유동성 급증과 경상수지 적자 심화를 겪게 됨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부터 촉발된 현재의 경기침체 국면은 IT버블 붕괴로부터 시작된 2001년의 경기침체와 원인과 지속성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됨
  - 2001년의 경기침체는 당시의 실물부문 경제를 주도하던 IT산업의 급속한 침체에 기인하였으며,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경기침체 기간도 단기간에 그친 반면,
  - 현재의 경기둔화 국면은 서브프라임 부실이라는 금융부문의 충격으로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연쇄적인 충격으로 이어져 침체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미국 경제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주택 경기가 소비부문의 구매력을 지탱하기 어려워 미국 경제의 장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 선진국 경기 부진

- 미국 경제가 부진할 경우 미국을 대신하여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성장 주도국이 없는 현실에서, 세계 경제의 동반 불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 미국 경제에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EU 및 일본 경제의 여건들을 고려해 볼 때, 이들 국가가 세계 성장을 대체 견인할 능력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
  - 2007년 기준 유로 지역 경제의 GDP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3%로 미국의 25.9%에 근접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가들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회원국간 협정으로 제약을 받고 있어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일본 경제의 경우에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이제 막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는 국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중국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와 디커플링을 보일 전망

- 중국 금융 시장의 대외개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중국 내 유입 자금이 대부분 단기간 내 회수가 어려운 직접투자 자금임
- 따라서 중국에 미치는 글로벌 금융 부문의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됨
- 다만 실물 부문의 성장 동력인 올림픽 개최 이후 특수가 사라지는 하반기에는 현재 수준의 고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함

○ 선진국 경기 부진에 따르는 세계 교역량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세계 교역의 거의 대부분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선진국 경제의 침체 국면 진입은 필연적으로 세계 교역량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미국발 세계 경제의 동반 성장 둔화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 전체의 교역량 위축으로 국내 수출 경기의 하강 국면 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국내 투자가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업 투자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다만 고성장을 지속하는 중국 경제의 인근 효과로 수출 경기 하강 속도는 완만한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전망

3. 정책적 시사점

○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의 점검

- 국제 금융 시장에 신용 경색, 국내외 주요 금융 기관 파산 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기존에 수립된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 전반과,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임

○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 투기 자본의 국내 금융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중앙은행들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유출입 자본에 대한 성격 파악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국제 금융 시장의 신용 경색이 국내 금융 시장으로 파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부실 금융 기관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외화 차입 비중이나 유출입 비중이 높은 금융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됨

○ 부동산 경기 연착륙 유도과 가계 부채 문제 완화

- 종과세와 재건축 규제 강화 중심의 경직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보다는, 시장 여건에 맞는 탄력적 정책 운용을 통해 민간 부동산 경기의 급랭을 막아야 할 것임
- 금융 기관의 가계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특히 감독이 어려운 사금융 대부업 시장에 대해서도 감독 기능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 특히 주택금융공사의 기능 확대를 통해 가계 부채 만기 장기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비한 내수 부문의 경기 지지력 강화

- 내수 부문 회생의 핵심인 기업 투자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조속한 투자 관련 규제 시행, 친 기업적 사회 분위기 조성 등과 더불어, 외국 기업에 대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외국인 투자 전용 특구 확대 등과 같은 패키지형 투자 활성화 정책이 요구
- 전반적인 경기 상승 추세와 괴리를 나타내고 있는 미약한 소비 부문의 회복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한시적으로라도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통해 가계 구매력을 확충시켜 주어야 할 것임